

직업계고 창업교육 활성화 방안 탐색

강경균¹, 백민정^{2*}

¹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²한국과학기술원

Exploring Activation Plan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Vocational High School

Kyoung-Kyoon Kang¹, Minjung Baek^{2*}

¹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²KAIST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직업계고에서의 창업교육을 실천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기관의 직업계고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직업계고에서의 창업교육 우수 사례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전문가 초점 집단면담(FGI; Focus Group Interview)을 통해 직업계고에서의 창업교육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계고에서의 창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과정 편성이 중요하다. 직업계고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직업계고의 비전과 학생의 역량으로서의 기업가정신을 교육과정에 근간으로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직업계고 창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측면이다. 먼저, 정규교과와 연계된 창업교육 운영이다. 창업 및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을 정규교과의 과목과 연계하여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창업 체험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러한 전문교과 교육과정과의 연계는 창업이론과 창업 실무에 대한 교육으로 창의적재량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셋째, 직업계고 창업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역량이 중요하다. 넷째, 창업교육은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통해 다양한 교육적 활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직업계고 창업교육을 운영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실천적이고 역동적인 창업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methods to practice and revitalize entrepreneurship education at vocational high schools. To achieve this goal, we analyzed the vocational high school program as well as effective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s at vocational high schools. In addition, FGI (Focus Group Interview) was conducted to determine strategies for developing entrepreneurship education at vocational high school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curriculum formation was found to important for vitalizing entrepreneurship education at vocational high schools. It is necessary to develop vocational high schools to account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s well as develop students' competence in entrepreneurship as the basis for the curriculum. Second, the operational aspect of the entrepreneurship education curriculum must be considered. Entrepreneurship education linked to regular curriculum is needed. Third, the competence of school members is an important factor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vocational high school entrepreneurship education. Fourth, entrepreneurship education can consist of various educational activities through connection with the school and community. Based on these results, operating vocational high school entrepreneurship education will enable practical and dynamic entrepreneurship education at vocational high schools.

Keywords : Entrepreneurship Education, Vocational High School,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Vocational High School, Activation Plan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Start-Up Education for Youth

본 논문은 대한상공회의소의 지원을 받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년 수탁과제로 수행한 '직업계고 창업교육 운영 모형 개발 및 활성화 방안'(연구보고 18-R-38)의 일부를 요약 및 재구성하였음.

*Corresponding Author : Minjung Baek(KAIST)

email: mjbak@kaist.ac.kr

Received November 4, 2019

Revised December 3, 2019

Accepted December 6, 2019

Published December 31, 2019

1. 서론

우리나라에서 최근 들어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다. 중등학교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사회교과에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이 포함되어 있고[1], 정부기관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에게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은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실천하며, 혁신을 통하여 가치 있는 실천을 할 수 있게 한다.

청소년에게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은 정부기관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창의적 진로역량 함양 및 융합인재양성이라는 목적 아래 실시되고 있다. 청소년에게 있어서 중요한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 및 활성화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2, 3], 이에 따른 교사 역량 함양 및 연수에 대한 요구도 증가되고 있다[4].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2002년부터 ‘청소년 비즈쿨(Bizcool)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경우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업가체험프로그램(YEEP; Youth Entrepreneurship Experience Program)을 최근에 진로체험 활성화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2017년 진로교육 세부 시행계획’을 통해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한 진로교육을 초 등부터 대학까지 대대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시행계획에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육을 포함시켰다 [5]. 특히 직업계고는 취업률이 둔화되었고, 이전보다 양질의 취업처가 감소되어 4차 산업혁명 대비 고졸 인력에게 요구하는 현장 지향적인 지식·기술태도를 기를 수 있는 교육이 요구됨에 따라, 2018년부터는 직업계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 연구학교를 운영 중에 있다.

교육부에서는 2019년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교육의 일환으로 미래융합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한국과학기술원 영재기업인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8년도부터 직업계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간 30시간 이상의 창업지도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5]. 이러한 직업계고의 창업교육 강화는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능동적이고 실제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직업계고 학과의 특성을 반영한 기술 기반의 창업교육은 학생들의 창의적 진로설계에 매우 유용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창업교육은 기업가정신을 키워 주고 창업에 대한 마인드를 제고하는 등 직접적인 창업역량보다도 창업과 직업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는 역량을

갖추는 것에 초점[6, 7]이 있다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의 비즈쿨의 경우, 가장 우수하게 운영되는 단계인 선도비즈쿨 운영학교에 직업계고가 80%정도가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직업계고에서의 창업교육은 매우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다[8]. 특히 직업계고 학생들이 기술 기반의 창의적 아이템을 개발하고, 생산하며, 직접 판매하는 등 모의 경영을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기술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실제적이고 능동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창업교육이 직업계고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과 실천 전략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직업계고 창업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학생들이 모의 경영을 통해 창업체제를 실천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업계고에서의 창업교육 운영 사례와 창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탐색하였다.

2. 직업계고 창업교육 운영 사례 분석

2.1 창업 및 기업가정신 관련 정부기관 프로그램 분석

우리나라 정부 기관에서 운영 중인 창업 및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은 특허청,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의 프로그램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 중 직업계고등학교에서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먼저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창업진흥원에서 비즈쿨(Bizcool)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함께 창업 및 기업가정신 교재 개발 및 운영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서 청소년 기업가체험 프로그램(YEEP; Youth Entrepreneurship Experience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특허청의 경우, KAIST와 포스텍(POSTECH) 영재기업인교육원에서 영재선발을 통해 차세대영재기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9,10].

2.2 직업계고 대상 창업교육 운영 우수사례 분석

직업계고에서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관련 운영 사례를 분석하기 위하여 직업계고 대상 청소년 기업가체험 프로그램(Youth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 YEEP) 우수 사례집을 분석하였다[11,12]. 청소년 기업가체험 프로그램 우수사례집에 제시된 학교 중 직업계고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A 고등학교, B 고등학교, C 고등학교이며, 우수사례집에 제시된 교육 내

용 및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학교 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A 고등학교는 기업가정신 교육에 초점을 두어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창업 동아리실을 구축하고 학교 구성원의 창업교육 연수를 운영하였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창업 체험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예컨대 교육 현장에서 YEEP을 정규 교과 시간과 연계하여 운영하였으며, 전문 과목인 전자상거래를 소재로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에게 창업교육을 운영하였다. 또한 창업실무 배양을 위한 창업 아이템 제작실습, 체험학습 교실 운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였다.

둘째, B 고등학교는 정규교과인 '창업 일반' 기초 과목 및 창업 실무(160시간), 방과 후 시간(80시간), 창의적체험활동(30시간)을 실질적 창업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 역량 교육으로서 창업이론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방과 후 창업동아리 운영을 통해 경험하고 싶은 창업 영역인 제조, IT, 수제식품 영역의 창업 동아리를 각각 만들어 운영하였다. 특히 협동조합창업부문을 별도의 창업 영역으로 구성하여 창업 동아리를 운영하였다. 이러한 동아리운영은 협동조합 창업 아이디어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실적을 내기도 하였다. 그리고 특화 프로그램으로서 교내에서 모닝마켓을 상시 운영하고, 지역사회 대학교의 세무교육과 협업하여 세무교육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그 밖에 서울시협력운영프로그램, 산학협력운영 프로그램도 특화프로그램으로서 운영하였다.

셋째, C 고등학교는 청소년 기업가 체험 프로그램과 동아리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운영하였으며, 교내에서 자신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직접 고안하고 제작한 제품인 액세서리를 홍보하고 마켓을 통해 판매 및 관리, 운영하였다. 그 결과 교내 마켓을 통해 얻은 수익금의 일부는 지역사회 요양원에 물품을 구입하여 기부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직업계고 교육과정 운영 상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교육 운영은 정규교과의 전문교과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정규교과의 과목과 연계하여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창업 체험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둘째, 동아리 활동을 통한 창업교육 운영이다. 학생들은 방과 후 창업동아리를 통해 자신이 직접 고안하고 만들어낸 물건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둘째, 동아리 활동을 통한 창업교육 운영이다. 학생들은 방과 후 창업동아리를 통해 자신이 직접

고안하고 만들어낸 물건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셋째, 동아리 활동 안에 다양한 창업 영역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예컨대 전문 기술을 심화하여 제조, IT, 농업, 건설 등의 동아리를 운영할 수 있으며, 또한 협동조합을 하나의 동아리 형태로 운영하여 창업교육을 실천할 수 있다. 넷째, 교내에 창업교육의 실제 체험을 위한 상시 마켓을 운영하는 것이다. 직업계고에서 학생들이 만든 물건을 교내의 마켓을 통해 운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마켓 운영은 교내의 동아리방 혹은 매점을 통해 운영할 수 있지만, 온라인을 통해 운영할 수도 있다.

그 다음으로 청소년의 효율적인 창업교육 환경 조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적성에 맞는 진로 교육을 바탕으로 창업교육이 운영되며,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제 창업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둘째, 창업 체험의 극대화를 위한 교육활동 결과물의 활용이다. 예컨대, 학생들이 제품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물건을 팔아보고, 남은 수익금을 지역사회의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기부하는 활동이다. 창업교육에서 기업가로서의 윤리는 매우 중요하다. 창업교육에서 기부활동을 통해 함께 가치를 공유하고 사회에 환원하도록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다. 셋째, 창업교육의 지역사회와의 연계이다.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방향은 다양하다. 학생의 창업 실무 교육의 일환으로 지역대학의 학과와 연계하여 교류를 할 수 있으며, 지역의 시구청과 함께 하여 창업교육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주민들과 만든 물건을 함께 공유하고, 수익금을 의미 있는 활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직업계고에서 창업교육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과정 운영뿐만 아니라 창업교육을 위한 환경 및 교육여건 조성을 통해 학생이 실무중심의 창업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무엇보다도 직업계고가 속한 지역사회의 구성원 및 인프라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 울타리를 벗어나 전문적이고 실제적인 창업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3. 직업계고 창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방안

3.1 연구개요

본 연구에서는 직업계고 창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 도출을 위하여 직업계고 창업교육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대상은 Table 1에서 제시하였듯이, 10년 이상 지도 경력이 있고, 정부기관에서 창업교육 관련 수상 실적이 있으며, 전국 단위 창업교육 관련 교사 모임에서 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교사 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Table 1. FGI Participants for Improving the Operation of Vocational high school

Teacher	Government Institution Awards	Entrepreneurship & Business teaching Experience	Entrepreneurship Education Teachers' Association
A	3	15years	Executives
B	2	13years	
C	3	15years	
D	2	16years	
E	2	12years	

자료수집을 위한 인터뷰는 직업계고에서의 창업교육 과정 운영, 창업교육 활동, 학교에서의 구성원의 협력 등을 통한 창업교육 활성화 방안을 중점을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은 전문가초점집단면담(FGI)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직업계고 창업교육 운영에 대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3.2 직업계고 창업교육 운영에 대한 활성화 방안 결과

직업계고 창업교육 운영에 대하여 도출된 개선 방안의 영역 및 주제는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학교 구성원의 역량, 지역사회 및 기타 여건으로 도출하였다. 직업계고 창업교육 운영 개선 방안을 위하여 도출된 내용과 주제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Topics for activating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vocational high school

Category	Subject
Curriculum Design and ope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ntrepreneurship Training Linked to Entrepreneurship · Vision of vocational high school o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and entrepreneurship as a student · Maximizing competitiveness by acquiring professional courses · Actual start-up activities
Competency of School Memb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Passion of the Operator and the Support of School Members
Community and other condi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nnect with school and local community · Spread entrepreneurship education for parents and local middle school students · Driving force for action and Base expansion

3.2.1 창업과 연계된 창업체험교육

직업계고에서의 창업은 창업이 목적이 아닌 창업과 연계된 창업 체험 교육수준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학교에서 창업, 실제 창업체험까지는 괜찮은데 목표를 창업으로 딱 이렇게 목표점을 갖게 되면, 옛날에 나왔던 부작용 그러니까 뭐 진짜 이게 내 적성이나 본인의 의지와 관계 없이 사업자등록증 이게 몇 개나 이런 쪽으로 거의 뭐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서. 교육기관이니까 우리가 창업 체험까지는 실전으로 해서 우리 캐시클래스처럼 그렇게 동아리로 하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서를 쓰고 심사를 받아가지고,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지원금을 받고 해서 한번 시제품을 만들어보고 실질적으로 어떤 제품시장이나 아니면 어떤 지금 많이 있는 이런 쪽에 가서 한번 판매도 해보고 정산도 해보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예를 들자면 각종 인가 그다음에 지적재산권보호, 이런 부분을 이렇게 경험하게 하는 그 부분이 이 부분하고는 딱 맞는 거 같아요. 그 결과 창업과 연계해서 진행하면 아주 좋은 그런 모델이 되겠지만 창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 부담이 좀 많지 않을까요?

실제 창업 동아리는 아이들이 이런 걸 왜 이렇게 느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다면, 실제 동아리 애들 중에 사업자등록 내는 것부터 아이들이 직접 다 해봐요.

이론을 예를 들어서 뭐 세무서가서 사업자소재지 확인서 이런 걸 애들이 준비해서 가라. 그런 걸 수업시간에 예를 들어서 한 시간 수업할 필요가 없는 게 “야, 인터넷 검색해봐.” 그러면 다 “세무서 가면 다 되는군요.” “선생님, 그러면 뭐 가져가요?” “야, 검색해봐. 전화 걸어서 물어봐.” 그러면 애들이 전화 걸어서 다 준비해서 다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사업자확인서 그거 하나만 딱 끊어주면 되고 그래서 그렇게 오히려 아이들이 그렇게 가서 체험하고 하면서 경험을 하고 그래서 법인 설립까지 다 해보고 정산까지 다 해보고 그렇거든요.

어쨌든 개네들은 저희가 창업교육을 하는 애들은 자기네 스스로 문제제기를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그거를 시각화하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다른 애들보다는 그 애들이 뭐라고 그럴까? 취업을 할 때도 그렇고, 애들이 달라요. 이런 어떤 체험적인 프로세스를 다 경험을 해보고 애들이 계획서도 써봤기 때문에 일반 다른 애들이 공부하는 것하고는 차별화가 많이 되는 거 같아요. 면접 가서도 굉장히 면접관들이 주로 비즈쿨 활동하는 애들 중심으로 많이 선발이 되니까 그 취업을 할 때도.

이론으로 들었던 것보다 자기가 직접 해봄으로써 직접 더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회사들이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실제 사업자등록내고 수익내보고 세금계산해보고 하는 친구들은 기업이나 경제에 대해서 '아, 이렇게 운영되고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경험이 돼요.

위의 진술처럼, 교육의 결과로서 본인의 적성이나 교과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의 개수 혹은 창업의 수보다는 창업에 대한 교육적 경험이 중요하다. 예컨대, 창업연구학교의 목적이 전공교과 혹은 동아리를 통하여 창업과 연계하여 실무적인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창업이 목적이 아닌 창업의 과정에서 겪게 되는 경험을 체험해보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학생들은 창업뿐만 아니라 취업에서도 그 동안의 창업 과정을 통해 일반 학생들과는 차별화된 장점을 갖게 된다.

3.2.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직업계고의 비전과 학생의 역량으로서의 기업가정신

창업교육과 창업교육의 근간이 되는 기업가정신은 직업계고에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중요한 방향성이 된다.

1년 전인가? 뭐 설문조사가 하나 왔는데 학교에 뭐가 왔냐면 도제학교, 취업역량, 4차 산업하고 관련된 것을 뭐를 설문조사가 한번 왔어요. 어디 교육부 차원인가? 어디서 근데 되게 황당했던 게 다 4차 산업하고 관련이 없어요. 도제고, 취업강화사업이고 이거에서 나온 각가지 사업들이 결론은 거기에 비즈쿨은 또 빠져있더라고. 그래서 비고란에다가 이거를 질문이라고 했냐고 그래서 막 신랄하게 막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앞으로 시대 변화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 국가적인 방향성도 그렇고 지금 차라리 이런 기업가정신이 틀이 아니고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거 말고는 이게 다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거 말고는 다른 키워드나 대안은 지금 없는 상태? 저도 못 들은 상태라 그 결론은 우리가 현재에서는 이거를 방향성? 지향성? 국가적인 나중에 경쟁력 있는 요소로 자리가 잡을 거 같고.

3.2.3 실천 동력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직업계고 교육 정책으로서의 창업교육

창업 및 기업가정신 교육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산하기관인 창업진흥원의 비즈쿨 사업으로 학교에서 2002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학교에서의 구성원은 창업 및 기업가정신 교육이 하나의 교육정책보다는 개인교사가 지원하여 가져온 하나의 사업으로 생각되고 학교 전체가 함께 움직이고 효과를 보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저변을 좀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중기청하고 창진원만의 사업이 되어버리니까 이게 일선학교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가 떨어져서 봤을 때는 어쨌든 이 창업교육, 기업가정신이 널리 퍼지려면 교육부도 같이 관여를 해야 된다. 나는, 이게 그들만의 사업이 아니라 그래서 아니면 같이 서로의 어떤 역할 분담을 교육부하고 중기청하고 이 기업가정신을 비즈쿨을 놓고 봤을 때, 서로 역할 분담이 좀 잘되어야 성공될 거 같은데 그러니까 NCS 교육만 하더라도 저희가 교육부에서 NCS를 정해놓고 거기 교육부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동안 뭐 수조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돈은 다 고용노동부 다른 부처에서 돈을 끌어당겼는데 마찬가지로 그 교육부에서 이거를 뭐가 좀 교육정책방향으로 삼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학교에서 열심히 해도 학교선생님들이 "야, 그건 OOO 네가 가져온 사업이잖아." 계속 그거로 그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학교 전체가 그건 뭐 저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위의 진술처럼, 학교에서 교육부의 정책으로서 창업교육이 운영된다면, 창업교육이 하나의 사업이 아닌 학교 전체가 창업교육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비즈쿨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학교전체의 방향성으로 느끼게 하려면 교육부에서도 큰 틀의 정책적인 차원으로 어떤 장기적인 플랜으로 계속 제시를 해주어야지, 아 사람들이 이런 게 필요한 거구나 좀 여러 가지로 좀 같이 가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저희가 옛날에는 창업교육만 하다가 최근에 한 5~6년 전 부터 기업가정신 마인드로 막 들어오니까 저도 좋았어요.

비즈쿨 프로그램이 좀 더 다양해지고 막 확대해지고 웬지 더 막 심도 있어지는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이 또 초, 중이 잘되면 그만큼 우리가 해야 될

기본단계가 거기로 내려가 있고 하나씩 그렇게 되면 또 교육, 중등직업교육에서는 좀 더 창업교육 쪽에 실무 쪽에 몰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의 사업이 아닌 교육부의 장기적인 정책으로 제시된다면, 학교가 창업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가질 수 있다. 더욱이 교육내용에 있어서 그 동안 비즈쿨을 통해 운영해 온 창업교육의 기본 단계들이 초·중학교에서 운영되고 직업계고에서는 창업실무에 중점을 맞추어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3.2.4 직업계고의 전문교과 습득에 따른 경쟁력의 극대화

현재 직업계고에서 배우고 있는 전문교과들은 창업교육의 실무적인 측면과 연계하여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직업계고 학생들은 정규교과 시간과 동아리 시간을 통해 창업교육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경험함으로써 창업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교육적 경험을 할 수 있다.

제가 이제 수업할 때는 이론을 하고, 이론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동아리활동 샘플은 이론적인 거는 안하고 실제 물건을 만들고 아이들 입장에서 만들고 판매하고 이런 체험위주로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론 위주로 하고.

제가 느끼고 제가 00대 대학생들 데리고 수업을 하는데 대학교 3, 4학년이 주식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우리 고등학교 3학년들이 자격증을 모두 많이 따셨어요? 스물 몇 개씩 따셨어요? 금융이건 ERP 건 회계든 세무 잘하는 애들은 다 따셨어요? 애들은 습득력이 몇 배가 돼요. 특성화고는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최근에는.

위의 진술처럼, 직업계고 학생들은 전문교과에서 배운 이론교육, 전문적인 기능 습득을 통해 대학생들보다 창업교육에 대한 경쟁력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우리는 프로그래밍 동아리를 제가 한번 해봤는데, 직업계고에서 이 창업교육이 좀 유리한 면이 있는 것이 아이디어 소통이라든지 디자인 이런 쪽은 사실은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이제 창업 쪽으로 연계를 시켜주는 부분이 가능한 게 직업계고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디자인을 공부하는 학생이 그냥 디자인만 배우고 포토샵

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디자인을 활용해서 주변에 있는 창업 아이템을 만들어내서 판매하고 저작권도 확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든지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뭐 어떤 농식품 이쪽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작은 아이템이라는 것이 뭐가 있냐면 소포장을 만든다든지 캐릭터를 만든다든지 또는 이런 부분 디자인을 이렇게 가미를 해가지고 자기 집이나 조합에 판매를 굉장히 많이 높이는 결과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것이 직업계고의 아이들의 강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수업시간에 배우는 디자인이나 코딩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여기에서는 더 이상 창업교육을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육과정인데도. 그래서 그 수업과정에서는 공부하고난 뒤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모으는 거죠. 코딩하는 애, 디자인하는 애, 전공하는 애, 모아가지고 이제 실질적인 창업 체험 활동을 하고 돈을 주고 캐시클래스처럼 운영을 해보는 거죠.

실제, 직업계고에서 창업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 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하고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창업 체험 활동을 경험한다. 예컨대, 창업교육 운영자인 교사는 학생들이 전문교과를 배운 강점을 살려 동아리 활동을 연결하여 실제 창업 체험 활동을 경험하도록 운영한다.

3.2.5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결

창업교육은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통해 다양한 교육적 활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일단, 뭐 저 개인적으로는 동아리중심으로 가고 저는 이제 00디자인이다 보니까 디자인도 이런 막 시각디자인 이런 게 아니라 주로 컴퓨터 그래픽 위주이니까 그것을 주로 일부분만 저는 주로 수업시간에 많이는 못 올려요. 매뉴얼 중심이어서 대신에 애들한테 이렇게 세 달 과정으로 해서 뭐 00구의 버려진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애들하고 프로젝트 수업을 해가지고 가서 애들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다시 재활용을 하고 애들이 새로운 공간으로 막 의미를 부여해서 탈바꿈 하계끔 그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데.

저는 구청에서 해마다 한 3천 5백을 창업으로 받거든요.

요. 그게 뭐냐면 그게 우리가 비즈쿨 페스티벌을 하잖아요? OO구가 이제 그래도 교육 쪽으로는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페스티벌을 해야 되는데 OO구에서 한번 장소를 못 구해서 OOO에서 서울시 광장을 못 구해서 OO구에서 장소 하나 주세요, 해서 한 적이 있어요.

이 다음부터 혹 가더니 이거를 OO구 사업으로 합시다, 하고 3천 5백을 주면 이제 OO구에서 학교로 오면 저희가 돈을 다시 그들한테 뿌려요. 그러면 그걸 한 동아리 당 백 만원씩 해서 어떤 학교는 5개이면 5백을 줘서 그들 중간에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강사도 불러와서 저희 학교를 거점으로 해서 OO구 자체만 해서 마지막에 10월 말에 OO구 마을대표단 그때 행사기간에 크게 OO구 페스티벌을 해요.

위의 진술처럼, 시청이나 구청을 통해 지원금을 받아 지역의 축제를 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그 동안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마을주민을 상대로 판매부스를 열어 운영하며, 또한 지역사회의 새로운 공간 혁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저는 저희 동아리 애들은 학교 전체에 동아리가 있는데 제가 보면 지금 OOO선생님처럼 저희가 이론 하는 분들이 좀 약해요. 저희 학교는 그래서 제가 계속 고민하는 건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계속 연결만이 살 길이다. 창업을 할 경우에는. 그래서 OO구에 OOOO센터가 있어요. 그 OO센터 그런 데서도 지금 막 이 창업 쪽으로 프로그램 단계별로 8주 과정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런 쪽으로 연결시켜주고 그다음에 저희 애들이 만약에 더 배울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쪽에 전화를 해서 우리 애들이 실질적으로 배우는 건 아니고 인터넷에서 우리끼리 이만큼은 왔는데 그 다음을 가르쳐줄 강사 좀 됩니까? 했더니 되더라고요. 의외로 비싸지도 않아서 그래서 또 그쪽으로 애들을 몇 주 과정으로 보내요.

서울시랑 연계를 해서 같이 막 판매를 하고 애들이 거기서 좀 더 심도 있게 배우고 해서 거기서 애들이 스킬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다들 창업교육을 할 때 착각하는 게 애들도 그렇고 창업을 하면 애들이 막 거창하게 생각을 하고 막 빌게이즈 막 뭐 스티븐잡스 그러는데 결론은 1인 창업이거든요.

아까 0선생님 얘기처럼 저희도 벤처기업들하고 인큐베이팅 하는 그런데 전문가들하고 실전창업 준비하는 학생들을 바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게 되려면

전문가풀이 있어야 되고

또한 학생들의 교육에 있어서 심화프로그램이나 학생들의 요구에 의하여 지역사회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창업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학생들이 벤처기업에 직접 가서 배우고, 때로는 강사를 초청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보내고 이제 OO대랑 OO대를 많이 활용을 했어요. 특히 OO대가 도움이 많이 됐던 게 OO대에서 OO대입주 회사가 한 80여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저희 학교 동아리랑 연계를 시켜줘서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특별 기안을 해서 제가 그거를 지었는데 '비즈쿨 도제수업'이다, 라고 해서 오전 수업하고 점심 먹고 애들이 뭐 OO대 앞으로 1인 창업한 사람한테 가서 그 스킬을 배워서 그래 가지고 그 분들하고 한두 달 정도 배우고,

또 아쉬운 거는 제가 또 OO대를 많이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OO대가 창업 선도 대학 매년 1등을 하니깐 한 46억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우리가 이리이러한 것들이 부족한테 이런 것 좀 뭐 3~4년 정도 되면 3D프린터 이거 교육을 좀 해줄 수가 있냐? 그쪽에서 강좌를 개설해주고 그쪽에서는 학교 홍보도 되고, 우리 비즈쿨 아이들을 끌고 갈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경주 쪽은 예전에 OOO대학에서 학생들 아이디어 대회를 해준 다음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단계별로 멘토링을 해가지고 뭐 결과물을 만드는 데까지 그런 쪽이 있고, 지금은 각 지역청하고 뭐 같이 뭐 OO 그런데 연계해가지고 뭐 3D나 4차 산업하고 연계해가지고 같이 시제품까지 만들어보는 새싹기업처럼 기업 형태로 운영해서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이 고등학교, 그 창업동아리 와서 멘토링을 10회면, 10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한 20분 스포츠마케팅 특강도 해주시고 되게 저도 신선했어요. 유튜브 찾은 게 그분 국가대표해서 세 명 나갔는데 그런 거나 아니면 불교 디자인만 전공하신 분도 있고 하는데 일단은 그들이 위탁한 입주기업들이 많으니까 그 성격을 맞는 잘 매칭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지역 대학교 혹은 지역청과 연계하여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접 대학생과 멘토링 혹은 대학교 창업기업의 경영자와 동아리 활동을 운영할 수 있다. 특히, 대학의 입주기업의 성격을 잘 파악하여 동아리 성격

과 잘 맞는 연결을 통해 운영하는 것이 요구된다.

지가 없으니까

3.2.6 무늬만 창업이 아니라 실질적인 창업 활동 운영

직업계고의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모집과 학교 홍보를 위하여 학과의 명칭에 '창업'을 넣어 학생들을 모집하고 홍보하지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질적인 창업 활동을 하여 그 과정 속에서 홍보하고 결과물을 홍보하는 것이 학생 모집에 도움을 준다.

저기는 다 학과 선생님들인데 계속 학과 네 개, 다섯 개가 다 똑같은 학과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내가 봐도 그 중학생 애들이 봤을 때도 근데 그들이 자기네는 공립이다 보니까 절대 안 바뀌요. 그러니까 계속 말장난으로 학과를 다섯 개 만들고, 그 거의 다 50% 못 채웠어요.

솔직히 저희 학교는 OO의 상업학교 중에 제일 중간이 있거든요? 그 제가 창업, 비즈쿨 10년 하면서 올해 OO에서 경쟁력 1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저희가 최고로 저희들이 OO에서 제일 낮은 학교였어요. 엄청 낮은 게 아니고 비슷비슷한데 공고를 먼저 보내고 OO고 보내고 그러는데 지금은 OO고가 미달되고, 저희가 7개 미달인데 저희가 1.4대의 경쟁률.

근데 저희들은 창업을 넣지는 않았지만 이제 홍보 같은 거는 체험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학교 브로슈어에 창업 관련 된 일을 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우수 사례 계속 넣어주고 감사관이 오더라도 감사 자료 넣고, 항상 이렇게 비즈쿨교육은 넣거든요.

반드시 결과가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학과가 찌그러져 있어야 한다는 거는 결과물이 학과를 졸업해도 그러니까 취업도 못하고 대학도 못가고 거기 나온 애들 뭐한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을 하던 대학을 잘 가든 뭐 창업을 스타가 나오든 뭐가 나와야 되거든. 그래야지 '아~'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전국에 더 비즈쿨 더 잘하는 선도학교도 그렇고, 결론은 그 학교에 신입생 모집할 때 보면 비즈쿨 이게 아니라 결론은 취업, 진학을 잘한다고 그게 확실하게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비즈쿨이나 기업가정신이 크려면 이거를 뭔가 성과를 시각화할 수 있는 단어로 표현으로 나올 수 있는 그들이 기업가정신 학부모들이 학교에 갑자기 와가지고 설명회에서 기업가정신 우리가 잘한다고 막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와 닿

위의 진술처럼, 직업계고에서 학과명의 변경이 우선적인 것이 아니라, 창업교육과 관련된 활동들을 통하여 취업, 대학, 창업 등의 결과물을 내고 이러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학교 홍보물 및 설명회 활동에 홍보함으로써 학교의 홍보에 도움을 준다.

3.2.7 학부모 및 중학생 창업교육 연결

직업계고 학생의 학부모들은 초창기에 창업교육으로 인한 동아리 활동, 페스티벌, 지역 부스 운영 등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 하지만, 학생들의 변화를 느끼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비즈쿨 5년 전에는 초창기에는 제가 애들을 키워줄라고 애들을 데리고 다니면 부모들이 전화로 왜 우리 아이 수업 빠지게 데리고 다닙니까? 나중에 부모보고 죄송하다고 말하고 설득해야 애들이 나오니까 그다음부터는 교장실에 찾아가서 우리 애들은 왜 동아리 안 듭니까? 좀 끼워달라고 로비가 들어와요. 동아리는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개네들은 버릇이 없거나 태도가 불량이거나 하면 다 잘라버리거든요. 학교생활을 잘 못하는 애는 다 잘라버려요. 애들한테 뭔가 자존감을 세워주는 거죠. 중학교 때 열등의식이 이제 자존감으로 바뀌고 또 예를 들면 상장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게 애들이 학교 대표로 간다는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면들이 애들한테 열정과 도전의식을 가르쳐 주는 거죠.

첫 번째 목적이 사실은 그거예요. 저희같이 창업동아리를 할 때 처음에 어려웠던 게 어디 데리고 나가려고 하면 학부모들의 신뢰를 못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으면 아까 해결되었듯이 거의 3분의 1 정도는 거기에 할애를 하죠. 이렇게 안전하게 활동을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좋은 데 가고, 이런 의미 있는 활동을 많이 합니다. 하는 그런 정도이고 나머지는 창업동아리 아이들 데리고 부모님 교육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학부모설명회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게 비즈쿨 교육이 되어서 취업이 되고, 공무원이 되고, 대학을 간다고 모든 걸 끼워 넣습니다...(중략) 많이 합니다. 우리는 학부모 대상으로 학부모 창업교육을 하거든요. 학부모 창업교육을 연 8회를 합니다.

위의 진술처럼,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창업교육 활동과 함께 학부모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받는 교육을 경험

함으로써 창업교육이 의미 있는 활동임을 경험하게 된다.

왜냐하면 항상 시기가 10월 말에 하다보니까 중학생도 시험기간하고 딱 께서 물론 이제 1, 2학년 애들은 조금 오기도 와요. 오는데 그 쪽이라기 보다는 어쨌든 인식은 확대가 되는 거 같아요. 조금 OO구 자체적으로

또한, 중학생들이 창업교육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및 인식이 확대된다.

3.2.8 운영자의 열정과 학교 구성원들의 지원

직업계고 창업교육 운영자에게는 학교에서의 사업 및 교육이 그렇듯이 열정과 헌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는 전국 2, 3등은 항상 쓸었어요. 저도 일주일에 한번 집이 머니까 그냥 속옷 다 써서 가서

그러면 선생님들은 저희 학교는 이거를 한 8년째 하나까 선생님들이 이거의 맛을 봐가지고 이 약발은 한 달 정도 가요. 한 달 정도 애들이 진짜 CEO 될 것처럼 뵈가 막 그 비전이 막 생겨요. 선생님들이 한 달이 어디냐? 한 달 뒤면 서서히 잊혀지지만 연타로 뵈가를 때려 줘야지 되는데

아니면 제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해주는데, 거의 대부분 싫어하죠. 내가 왜 일을 하는데?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거나 아니면 그 선생님님 능력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제도적인 것이 가장 큰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도 뵈을 때 진짜 마인드 없는 분이 안 뵈았으면 좋겠지만 그런 제도적인.

위의 진술처럼, 직업계고에 질 높은 창업교육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협력과 학교장의 의지와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리고, 직업계고 창업교육 운영자에게는 학교에서의 사업 및 교육이 그렇듯이 열정과 헌신이 필요하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직업계고에서의 창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

한 목적으로 정부기관의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직업계고 창업교육 우수 사례와 창업교육 운영 전문가인 교원을 5명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직업계고 창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실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 편성 측면이다. 직업계고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직업계고의 비전과 학생의 역량으로서의 기업가정신을 교육과정에 근간으로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업계고 학생들이 다양한 물품을 나누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 산출된 아이디어 물품을 판매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생들이 모의 경영을 경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직업계고 창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 측면에서는 전문교과와 연계된 창업교육 운영이 필요하며, 창의적체험활동을 통하여 다양할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통한 창업교육 운영이다. 학생들은 방과 후 창업동아리를 통해 자신이 직접 고안하고 만들어낸 물건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창업교육의 운영의 형태 측면에서 동아리 활동 안에 다양한 창업 영역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예컨대 전문 기술을 심화하여 제조, IT, 농업, 건설 등의 동아리를 운영할 수 있으며, 또한 협동조합을 하나의 동아리 형태로 운영하여 창업교육을 실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내에 창업교육의 실제 체험을 위한 상시 마켓을 운영하는 것이다. 직업계고에서 학생들이 만든 물건을 교내의 마켓을 통해 운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마켓 운영은 교내의 동아리방 혹은 매점을 통해 운영할 수 있지만, 온라인을 통해 운영할 수도 있다.

셋째, 직업계고 창업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협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 차원에서 학교장과 교원의 협업을 통해 학생의 주도적인 창업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요구된다.

넷째, 창업교육은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통해 다양한 교육적 활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의 예산을 지원 받아 지역사회 축제 혹은 대회에 참석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재래시장, 마을에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다. 그리고 학부모와 함께 학교에서 창업교육을 하고 물건을 판매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 대학교와 다양한 협업을 할 수 있다. 대학 내 창업기업 및 창업보육센터와 멘토링을 할 수 있으며, 창업선도대학과 창업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전공과 같은 학과와 협업하여 물건을 만들고 판매를 함께 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대학뿐만 아니라,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와 연계하여

자유학기제를 통한 창업체험 진로교육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직업계고가 창업교육을 실천을 위하여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교사의 전문성과 구성원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기업가정신 및 창업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아울러, 학부모, 지역주민, 지역기업, 지역 대학 등지역과의 연계 등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창업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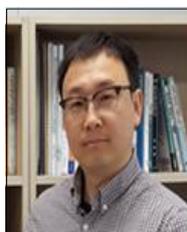
References

- [1] K. K. Kang, "Study on Development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Model for Youth", *The Journal of Creativity Education*, Vol.17, No.2, pp. 17-36. 2017.
- [2] K. K. Kang, "A Study on the Plan for Creating a Youth Entrepreneurship Education Environment",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Education*, Vol.42, No.2, pp. 67-88. 2017.
- [3] K. K. Kang, "Development of Curriculum Framework for Entrepreneurship of Youth",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36, No.4, pp.84-108. 2017.
- [4] M. J. Baek, M. S. Park, K. A. Kyun., "A Study on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Upon the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of the Entrepreneurial Gifted and General students", *Journal of Gifted/Talented Education*, Vol. 27, No.3, pp.257-275, 2017.
DOI: <https://doi.org/10.9722/JGTE.2017.27.3.431>
- [5] M. J. Baek, K. K. Kang, B. J. Lee,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the Educational Need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 : Focused o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2, pp.564-574.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12.564>
- [6] B. J. Lee, Y. B. Kim, "The Effects of High School Students' Calling on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Vol.27, No.1, pp.223-242. 2017.
- [7] Y. P. H, D. W. Yang. "The Effect of Satisfaction on the Start-up of Bizcool (:Entrepreneur) Education Program of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Including Modulating Effects of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The Journal of Small Business Innovation*, Vol.21, No.3-4, pp. 39-56. 2018.
- [8] H. B. Yang(2018). A Study on the Development Plan of Youth Bizcool. Sejong: Ko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 [9] http://ipceo.kaist.ac.kr/ipceo/sub02_02.do

- [10] <http://ceo.postech.ac.kr/ceo/introduction/education.html>
- [11] Korean Research Institute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2018). Best Practices Cases for Youth Entrepreneurship Experience Program.
- [12] <https://yeep.kr/intro/yeepIntro.do>

강 경 균(Kyoung-Kyoon Kang)

[정회원]



- 2006년 2월 : 한국교원대학교 기술교육전공 (교육학석사)
- 2011년 8월 : 충남대학교 기술육전공 (교육학박사)
- 2014년 2월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기술경영전공 (경영학 석사)
- 2014년 12월 ~ 현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관심분야>

기업가정신 교육, 진로·직업교육, 노작교육, 발명교육

백 민 정(MinJung Baek)

[정회원]



- 2010년 8월 : 단국대학교 경영정보전공 (경영학 박사)
- 2009년 11월 ~ 현재 : KAIST과 학원재교육연구원 연구조교수
- 2009년 11월 ~ 현재 : KAIST IP영재기업인교육원 사업책임자

<관심분야>

기업가정신교육, 진로·직업교육, 영재교육, 발명교육